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20.9.14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을 추이
	1W	1M	3M	6M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KOSPI	1.2	-0.4	12.4	35.3	17.4	17.4	1.0	1.0	1.8	1.8	<p>SKT 35.7% (+0.1%p WoW, +1.3%p MoM) KT 45.1% (-0.1%p WoW, +0.1%p MoM) LGU+ 31.9% (Flat WoW, -0.2%p MoM) SK텔레콤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5주 연속 지속</p>
통신업종	1.4	-0.7	8.2	16.2	11.3	11.3	0.7	0.7	4.1	4.1	
SK텔레콤	2.3	0.4	16.5	23.4	13.4	9.3	0.8	0.8	4.1	4.3	
KT	-1.1	-8.8	-2.3	10.7	8.6	7.5	0.4	0.4	4.7	4.9	
LG유플러스	0.8	-3.3	-5.6	0.4	9.4	8.3	0.7	0.7	3.4	3.7	
AT&T	-2.0	-3.0	-4.9	-15.9	9.1	9.0	1.1	1.1	7.2	7.3	
Verizon	-1.4	2.2	5.8	10.4	12.6	12.1	3.8	3.3	4.2	4.2	
T-Mobile	-2.8	-3.3	9.3	30.9	45.6	40.6	2.0	2.3	0.0	0.0	
NTT Docomo	-1.1	-9.0	-1.2	-1.2	15.5	15.1	1.7	1.7	4.2	4.4	
KDDI	-1.8	-11.0	-7.7	5.7	10.7	10.3	1.5	1.4	3.9	4.2	
Softbank	-7.5	-8.8	15.6	55.7	N/A	7.5	1.5	1.6	0.8	0.7	
China Mobile	0.0	-9.9	-2.0	0.5	8.9	8.6	0.8	0.8	6.3	6.6	
China Unicom	2.1	-5.9	24.7	8.0	11.4	9.7	0.4	0.4	3.5	4.1	
China Telecom	-0.4	-3.5	9.1	0.8	8.5	7.9	0.5	0.5	5.1	5.5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9월 둘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0.2%p 수익률 기록하며 Outperform 지배구조 관점에서 관심이 높아진 SK텔레콤이 경쟁사 대비 Outperform 삼성전자 美 버라이즌에 8조원 규모의 5G 통신장비 공급계약 체결, 산업 내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 국내 기관은 LGU+, SK텔레콤 순매수, KT 순매도. 외국인은 SK텔레콤, LGU+순매수, KT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 삼성전자의 버라이즌 공급계약 체결 이후 모멘텀 소멸로 통신장비주 추가 부진 향후 AT&T, Reliance Jio 등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5G 공급계약 확대 전망 5G 통신장비주 선호도는 여전히 서진시스템, RFHIC 순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6	7 삼성전자 美 Verizon社 5G 통신장비 공급계약 공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3 주간 뉴스

▶ 삼성, 美 버라이즌과 7.9조원 규모 5G 통신장비 공급계약 체결 (ZD Net Korea)

- 삼성전자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과 7조 8,982억원 규모의 통신장비 공급계약 체결
- 2025년 12월 31일까지 5G 이동통신 장비를 포함한 무선통신 솔루션 공급 및 설치, 유지 보수 진행
- 이번 버라이즌과의 공급 계약은 한국 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
- ⇒ 미국 시장의 핵심 장비 공급자로 인정받으면서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의 추가 수주 가능성 암시
- ⇒ 삼성전자의 미국 향 5G 통신장비 성과로 인해 국내 삼성전자 밸류체인 업체들 수혜 전망

▶ 中 베이징시, '5G SA'로 도시 커버 (ZD Net Korea)

- 중국 베이징시 5G 단독(SA, Standalone) 모드 네트워크를 도시 전체에 구축 및 개통
- 선전에 이어 두번째, 이미 건설된 4만 4천개의 5G 기지국이 모두 SA 네트워크 코어망으로 구성
-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중국의 세 통신사와 협력업체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수 1000개 돌파
- ⇒ 향후 베이징시의 5G 기지국은 5만 개를 돌파할 전망, 중국 내 5G 네트워크 구축 속도 가속화
- ⇒ 중국의 5G 투자 본격화와 함께 중국 내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및 ZTE의 점유율이 상승할 전망

▶ SK텔레콤, 美 버라이즌에 '양자키분배기' 첫 상용망 적용 (전자신문)

- SKT, 美 버라이즌에 양자키분배기 공급. 대형 통신사에 양자 기반 보안 기술 상용 판매한 첫 사례
- 버라이즌, 광통신망에 QKD를 적용. 미국 통신사 처음으로 양자암호통신 운영에 성공
- 송 수신 중간에 해커가 양자 채널에 간섭하면 즉각 탐지하고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는 사실 확인
- ⇒ 양자암호통신 기술 전체 통신망으로의 확대 전을 위해 SKT QKD 장비 추가 도입 전망
- ⇒ SKT는 글로벌 고객사 확보와 함께 양자암호통신 표준 제정 주도를 통해 시장 선점해나갈 계획

▶ 차세대 5G 밀리미터파 주파수 확정 ... 총 17GHz 폭 신규 분배 (전자신문)

- 과거부, 24GHz, 37GHz 등 밀리미터파 대역 총 17.25GHz 대역폭 5G 이동통신용으로 확정
- 국제표준으로 승인되거나 자체 발굴한 5G 대역을 반영해 '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를 개정
- 17.25GHz 폭에 이르는 5G 주파수 신규 분배는 당장의 활용보다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
- ⇒ 밀리미터파 대역의 활용은 산업용 기술 진화에 따라 상용화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
- ⇒ 밀리미터파 대역의 초저지연과 높은 데이터 전송률으로 초대용량 5G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

▶ SKT, 삼성·HPE·인텔과 '초협력'... 5G 네트워크 가상화 도전 (아이뉴스24)

- SK텔레콤, 삼성전자, HPE, 인텔과 함께 '5G 네트워크 가상화' 상용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5G 가상화 기술 및 표준 프로세스 수립, 가상화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 개발 등 폭넓게 협력
- '5G 네트워크 가상화'는 여러 통신 장비 기능을 소프트웨어 형태로 구현하는 방식
- ⇒ SKT는 5G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5G 코어망 핵심 네트워크 상용망에 연동하는 역할 예정
- ⇒ 4사간의 협력을 통해 5G 핵심 네트워크인 '코어망' 전체를 가상화하는 역할 확보 전망

▶ 현대·기아차, 이동통신시장 '출사표'... MVNO로 미래차 '성큼' (아이뉴스24)

- 과거부는 현대 및 기아자동차가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로 변경됐다고 10일 발표
- MVNO 사업자가 되면 완성차 업체가 직접 통신사 망을 빌려 직접 서비스 제공 관리 가능
- 국내 현재 현대 기아차, 르노삼성, 테슬라코리아 등이 MVNO 방식으로 차량제어 서비스 제공
- ⇒ 과거부는 데이터 선구매제, 다량구매 할인제 등을 통해 MVNO의 사업 분야 확장을 지원할 계획
- ⇒ 현대 기아차 커넥티드카 서비스 자율성 확보, 향후 이통 3사와의 협업 전개 방향 관심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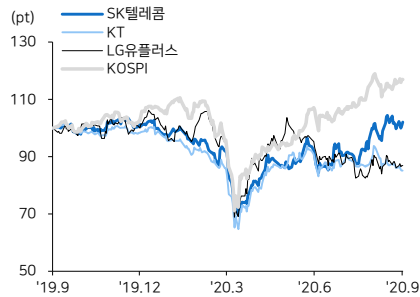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2020E	2021E	
한국	SK텔레콤	243,000	16.5	15.7	16.4	1.1	1.2	1.2	1.8	4.6	4.7	5.5	5.3	6.2	8.9
	KT	23,250	5.1	20.4	21.0	1.0	1.1	0.6	0.7	4.2	4.3	2.5	2.4	5.1	5.7
	LG유플러스	11,900	4.4	11.4	11.9	0.7	0.8	0.5	0.5	2.7	2.9	3.5	3.3	7.6	8.2
미국	AT&T	29.0	206.6	169.6	171.6	33.5	35.0	20.2	21.5	55.3	56.4	6.8	6.7	11.4	11.6
	Verizon	59.8	247.4	128.1	132.4	29.3	31.3	18.9	20.4	46.6	48.1	7.6	7.3	30.4	29.1
	T-Mobile	111.6	138.1	67.0	73.4	6.6	6.9	2.6	3.1	22.3	23.9	9.2	8.6	5.5	5.1
일본	NTT Docomo	2,838.0	86.3	43.4	43.0	8.0	8.3	5.5	5.7	13.6	13.8	6.5	6.4	11.2	11.6
	KDDI	2,921	63.4	48.6	49.7	9.7	9.9	5.9	6.1	15.7	16.5	5.0	4.8	14.9	14.5
	Softbank	5,860	115.4	57.1	62.1	-12.6	8.6	-7.1	12.7	5.6	18.1	38.4	12.0	-11.3	20.7
중국	China Mobile	53.2	140.4	111.2	115.5	16.9	17.2	15.8	16.4	42.7	44.2	1.9	1.8	9.6	9.6
	China Unicom	5.4	21.3	43.9	45.7	2.0	2.3	1.9	2.2	14.1	14.6	1.6	1.6	4.0	4.5
	China Telecom	2.5	26.2	56.7	59.2	4.4	4.6	3.1	3.3	17.5	18.0	2.1	2.0	5.9	6.2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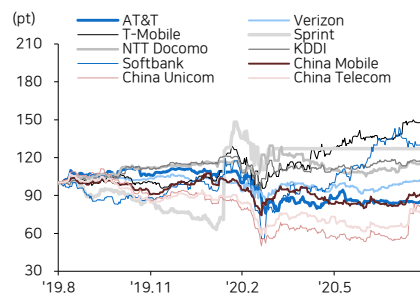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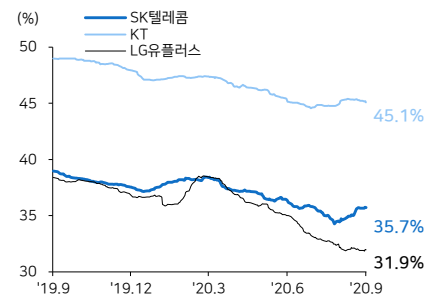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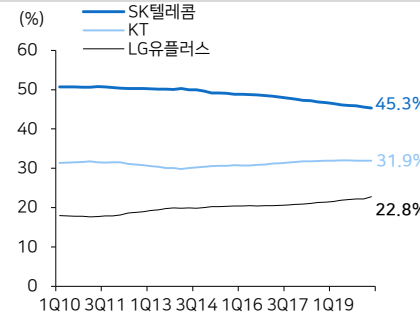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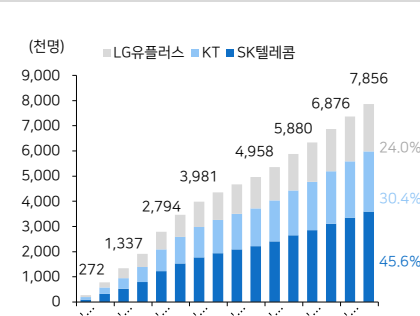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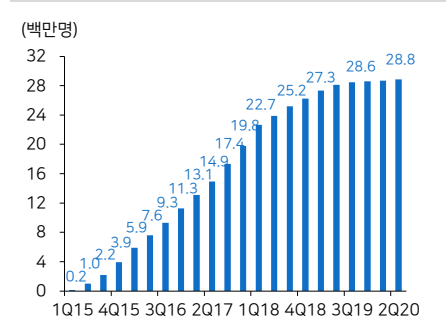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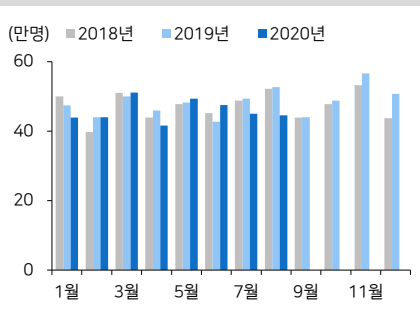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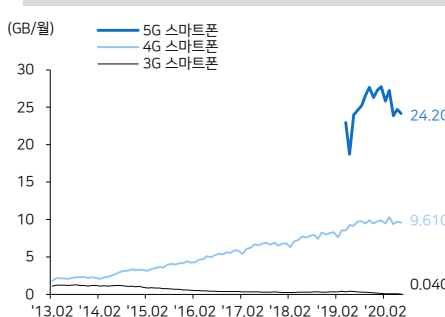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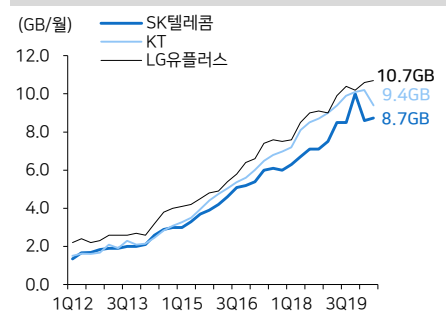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